

석유화학 4사, 화학탐구 페스티벌 개최

SK에너지, LG화학, 한화석유화학, 호남석유화학 등 국내 석유화학 4사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KAIST가 심사·주관하는 화학탐구 프런티어 페스티벌이 열린다.

2008년 5회째를 맞는 대회는 고등학생의 화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2004년 시작됐으며, 국내 석유화학메이저들이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해 주목되고 있다.

제5회 화학탐구 프런티어 페스티벌은 화학에 관심 있는 고등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2인 1팀을 구성해 환경, 에너지, 생활과학, 기초과학, 생명분야 등 화학과 관련된 탐구주제를 담은 제안서를 대회 공식 웹사이트(www.ilovechem.co.kr)에 접수하면 된다. 제안서 접수는 4월18일부터 5월29일까지이다.

예선 참가팀 중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40개팀은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탐구활동을 실시하고, 9월 6일 본선대회에서 탐구결과에 관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최종 수상팀을 가리게 된다.

시상식은 10월17일 실시될 예정이며, 본선 수상팀에게는 상장과 함께 노트북, 컴퓨터,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 등 푸짐한 부상이 주어진다.

또 수상자 전원에게는 대회 주최기업 입사 및 산학장학생 선발시 가산점 부여 등의 특전이 주어지며, 은상 이상 수상자에게는 해외연수의 기회도 함께 주어진다.

아울러 학교와 지도교사에게도 학교발전기금, 해외연수 등 푸짐한 부상이 제공된다.

<화학저널 2008/04/21>